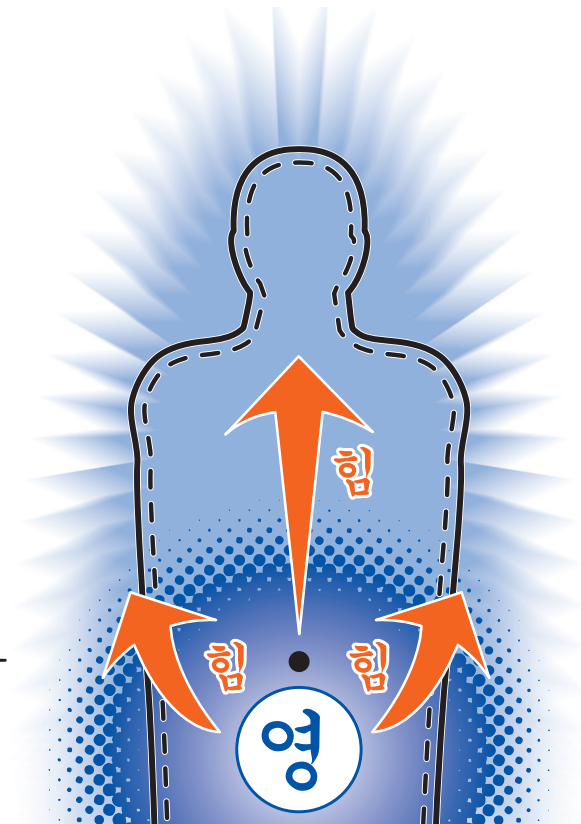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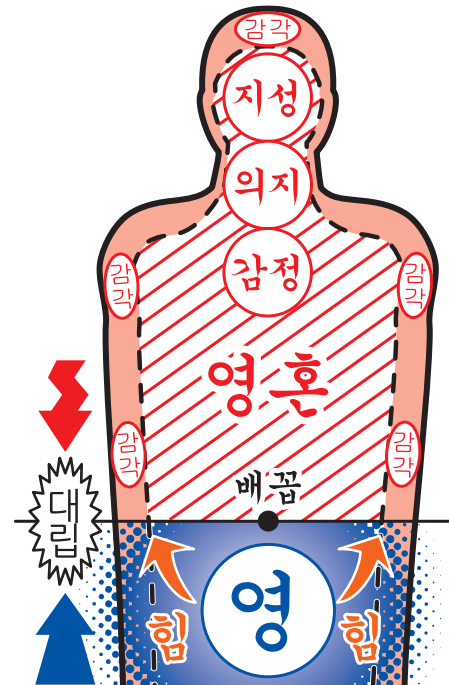


#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다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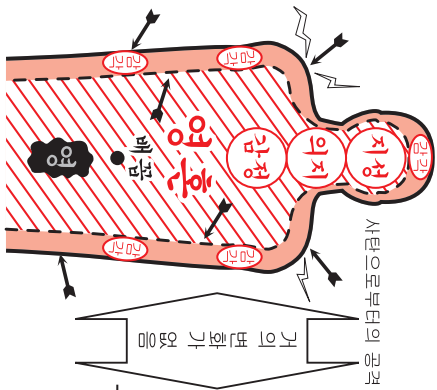
성령으로 채워진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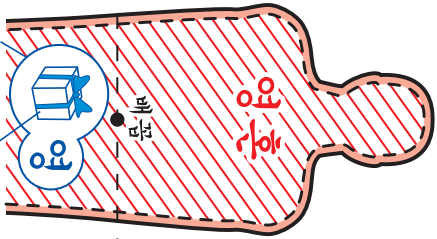
성령을 받아 구원받기 전의  
자기와 싸우는 크리스천

**몸**  
(영과 영혼을 덮고 있는 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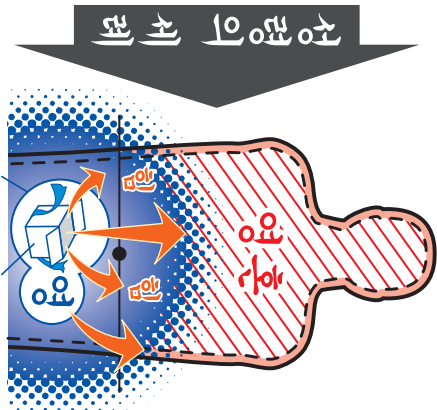
**영 · 영혼 · 몸**  
《당신의 본질》 (지성·의지·감정) (각각)  
진짜 당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입은 가죽옷》  
육체  
사탄의 지배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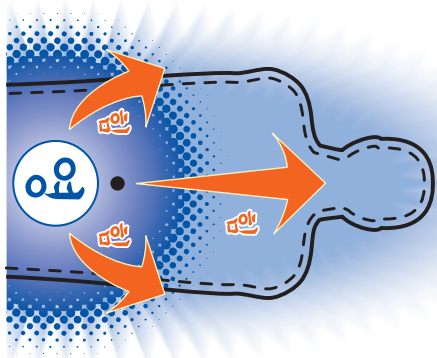
(1) 보통의 인간



(2)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만 한 크리스천



(3) "성령의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



(4) 성령으로 가득차 있는 크리스천

데살로니가전서5장23절  
평강의 하나님아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일본어 성경책을 직역)  
부디 평강의 하나님 당신께서 너희를 온전하고 깨끗하게 해 주시도록 또한 너희의  
영과 마음(영혼)과 몸을 온전히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비난 받는 부분이 없는 자가 되게 해 주시도록

「포도나무」 발행

# 목 차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	1
시작하며.....	3
1 장    올바르게 구원받고 있습니까? .....	5
2 장    진정한 크리스천이 됨 .....	14
·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	18
· 〈성령의 세례의 기도〉 .....	18
·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께 .....	19
3 장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한다 .....	25
· 《영과 육신(영혼·몸)의 성별》 .....	28
· 《목사란》 .....	35
· 《형제 자매란》 .....	45
· 《간증이란》 .....	52
· 《집회란》 .....	57
마지막으로 .....	62
〈실록〉O씨의 간증(K씨에게 보낸 편지) .....	64
포도나무에 대해 .....	73
작성자에 대해 .....	74
〈부록〉인체 그림 (영·영혼·몸)	

##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일본어로 만든 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일본어와 한국어의 성경말씀 내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면 같은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본래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올바르게 전해지지 않아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통감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책에는 한국어 성경【한일대조성경】에서 인용한 말씀 아래에 **일본어 성경**〈口語訳聖書 구어역 성경책〉에서 인용한 말씀을 한국어로 직역해서 올렸습니다.

어느 역(해석)이 맞고 어느 역(해석)이 틀린지라는 논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우리 크리스천은 사탄의 책략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까지 성경책은 하나,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로 국경을 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크리스천이 쉽사리 하나가 될 수 없었는지..... 그 원인의 하나가 성경말씀 그 자체라면 이 책을 계기로 우선은 일본과 한국의 크리스천이 같은 지식의 일치에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의 형제 자매 여러분들과 진리= 성경말씀을 공유해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로마서 9장17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즉 너에 의해 내 힘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서이다.〉

## 시작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양한 신들과 종교가 넘쳐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유일한 신인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성경책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경말씀으로 당신(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다.〉  
(요한계시록19:13) 라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이 이 지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갑작스럽지만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런 성경말씀을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말씀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같고 모든 성경말씀에 충실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충실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책은 크리스천(=그리스도와 닮은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자세나 성경말씀에 어울리는 목사·형제 자매·간증·집회에 대해 성경말씀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확인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 받은 여러분에게 축복과 기쁨부음이 더욱더 주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절~17 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책은 모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것으로 사람을 가르쳐 훈계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것에 의해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대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며 완전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8 절~19 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 대해 나는 경고한다. 만일 이것들에 덧붙여 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재해를 초래할 것이다. 또한 만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삭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시로부터 없앨 것이다.〉

우선 1 장, 2 장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 1 장 올바르게 구원받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복음 책을 크리스천들이 나누어 주고 있지만 예수님과 만남 부터 시작해서 성경말씀과 다른 『구원』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신 것에 대한 감사밖에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죄의 용서만을 전하고 그것에 따르는 "힘"을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인 죽은 신이시며 가톨릭(마리아 우상 숭배)이나 불교, 신도처럼 힘이 없는 신을 마음의 의지할 곳(=종교)으로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소리 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당신은 처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10장 9 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자신의 입으로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는다면 너는 구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리신 후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는 예수님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권위, 증표와 기적이 따르는 "힘"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10장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나는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적의 모든 힘에 승리할 권위를 주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해를 가져올 자는 전혀 없을 것이다.〉

마가복음16장17절~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고 새로운 말을 하며 뱀을 집을 것이다. 또한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다면 치유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크리스천은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돌아가신 것에 의해 영원히 살아 있는 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밀(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 것은 보통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겨자 씨 한 알 정도의 신앙을 가졌다면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믿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상식, 지혜, 판단 이상의 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당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 믿을 수 없다면 당신은 예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환자에게 손을 얹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있다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환자에게 손을 얹어 치유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 두 번째는 기도의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나 성경말씀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이 승낙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받아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아멘」은 「그렇게 됐다 라고 믿습니다」라는 의미이며 말할 때마다 모든 기도와 성경말씀이 신앙의 토대 위에 쌓여 크리스천으로서 착실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그 사람(= 예수님)에게 있어서 「틀림 없다」라고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 예수님)에 의해 「아멘」이라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만으로 성령이 움직여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채워지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와는 별도로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책에도 요한에 의한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으로부터의 성령과 불의 세례, 이 두 가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힘이 있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곧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곧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19장1절~6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으니「아닙니다. 성령이 계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그럼 누구의 이름에 의해 세례를 받았습니까?」라고 바울이 물으니 그들은「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울이「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것에 의해 내 뒤에 오실 분, 곧 예수를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유했습니다.」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에 의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채워지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여 가려내는

하나의 방법은 당신의 입에서 새로운 말=방언이 나오는지 아닌지입니다. 실제로 "오랫 동안 신앙에 의해 성령으로 채워져 방언을 말해 왔다고 하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니 순식간에 방언이 바뀌었다"(이전의 방언은 켈트로부터 오는 방언이었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신앙에 의해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히 순서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간단한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주님에 대한 고백의 기도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가는 것 (영원한 생명) 이 약속되어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성경책에 쓰여져 있지만 과연 모든 크리스천이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일까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마태복음 7장 13절~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작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좁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는 자가 적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나는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뜨겁든지 어느 한 쪽이 되기를 원한다. 이같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기 때문에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릴 것이다.>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왜 이런 말씀이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일까요? 성경책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부터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된 뒤에는 성경말씀은 전부 당신을 영원히 가르치며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책이 묵직하고 두께가 있는 것은 구원받은 후의 생활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 받으면 모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성경책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성경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를 향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자가 모두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향해 『주여 주여 우리는 당신의 이름에 의해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신의 이름에 의해 악령을 내쫓고 당신의 이름에 의해 힘이 있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할 것이다. 그 때에 나는 그들에게 확실히 말하겠다. 『너희를 전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예언, 악령을 쫓아 내는 등의 "**힘**"이 있는 일들(기적)을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지 않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가짜(컬트)인지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천국의 문이 얼마나 좁은지 이 성경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신 분들, 「나는 주님께 대한 기도를 해서 구원받았으므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며 안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방언, 악령과 싸우기 위한 "**힘**"과 성령의 선물을 얻어 모든 성경 말씀에 대해 「아멘」이라고 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듣는 옳지 않은 성경말씀의 해석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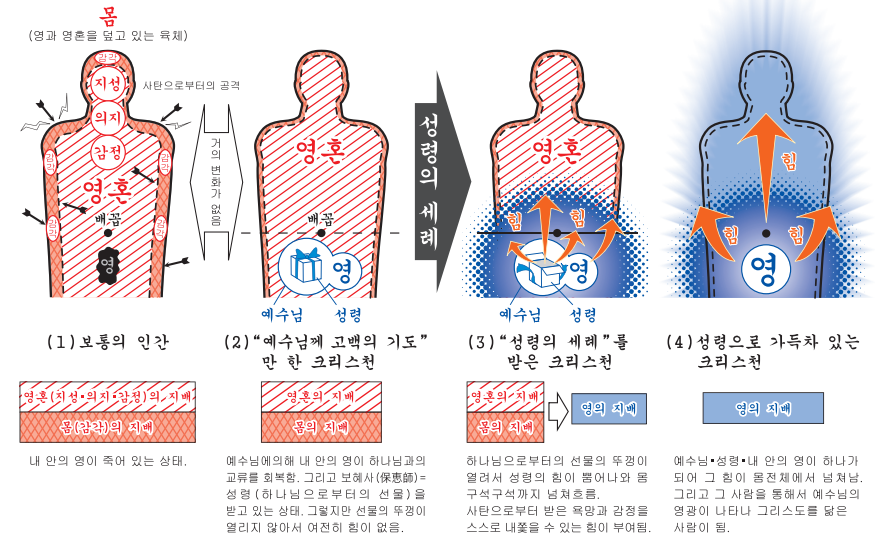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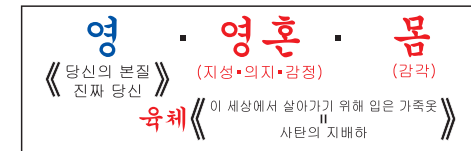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은 아주 솔직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해석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이해하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영으로 인도받고 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고 있다」라고.....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은 받았지만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채워져 성령에게 주도권을 주어야 합니다. 성경말씀도 해석 하나로 큰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 2 장 진정한 크리스천이 됨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4 단계로 분류해서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 를 하면 예수님께서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 안에 들어 와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보혜사= 성령이 주어져서 당신의 영과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이 상태로는 애써 받은 선물인 성령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의 인체 그림) 우선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뜯니다.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분출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도 몸도 성령이라는 생수에 한 번 담궈지는 체험을 합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의 인체 그림)

물의 세례는 이제까지의 인생을 회개하고 새로 태어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이 물의 세례를 **《육신의 인생과의 결별=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세례는 **《영에 의해 계속 살아가는 인생의 첫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 계속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 차기 위해 자신의 영과 함께 계시는 성령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행동= 특히 신앙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도 따라 잡니다.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가 「구원」, 물의 세례가 「신앙 고백」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진정한 크리스천 (= 새로 태어난 크리스천이라고 함) 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 을 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옳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①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를 한다. 「구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는다.〉

(로마서10:10) 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 단계는 마음 (영혼의 영역)입니다. 겨자 씨 한 알 정도의 신앙이 있으면 됩니다.

#### ②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는다.

「새로 태어난 크리스천으로서의 힘」

③ 모든 성경말씀 · 기도를 「아멘」이라 하며 영으로 받고 영의 자신을 성장시킨다.

주의!

물의 세례 「신앙 고백」보다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천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나 물과 영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3:5)

둘 중 하나라도 받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구원」에서부터 돌이켜 보십시오. 흐지부지한 크리스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크리스천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지상 (어둠)에서 빛을 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됐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병, 빈곤한 상태로부터 해방되기는커녕 더 나쁘게 악화 되고 있다.」라는 현상은 사탄이 다른 사람보다 당신을 더 공격해 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한다.」 「저 때에 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들어 주셨지만 이 병에 대해서는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다.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일상 생활 중 예수님의 존재나 자신의 신앙이 크게 되거나 작게 되거나 아니면 전혀 없어져 버릴 때가 있다면 그것은 역시 영혼만으로 살아 있는 "감정 (feeling) 크리스천"으로 종교를 믿고 있을 뿐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의 인체 그림)

성령의 세례는 그런 당신에게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 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성령께서 자유롭게

움직여 주시는 그릇 (인간) 에는 많은 축복과 성경말씀이 틀림없다! 라는 강한 신앙이 따라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으로서 나타나고 당신은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이끄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인체 그림)

진리의 성령, 보혜사의 중대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14 장~17 장에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말씀하신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2장 22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1 장 4절~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전부터 나에게서 듣고 있던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다시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신도 30 살까지는 보통의 인간으로서 생활하시고 계셨지만 성령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힘"을 얻었고 수많은 증표와 기적을 수행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기 위해, 또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룩해 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은 "성령의 폭발적인 힘" 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 "힘"을 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어엿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는 힘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토, 또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와 성령의 세례(첫 성령 충만)를 받으십시오.

다음 두 기도를 소리를 내어 읽어 주십시오.

### 〈예수님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드리오니 저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십시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성령의 세례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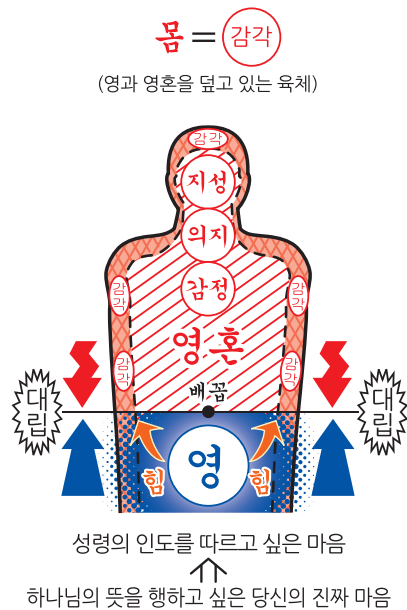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저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하사 해주세요. 저의 전신을 성령으로 채워 주세요. 바로 지금 성령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언 (성령에 의해 말하는 말) 도 주세요. 받았다고 믿고 혀를 움직이겠습니다.

(행동= 신앙을 가지고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입니다. 우선은 라라라 라라..... 라고 소리를 내어 혀를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받았다고 믿어 주세요. 그 후 성령에 의해 자연스럽게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때가 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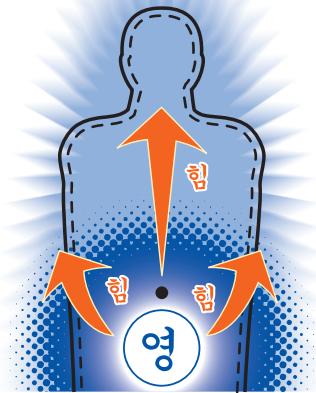
예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당신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에 따른 새로운 말=방언을 말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 할렐루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께



성령이 자유롭게 움직여 주시는 몸이라도 영혼(지성·의지·감정)과 몸(감각)=『육신』이 없어질 리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한 항상 영혼과 몸으로부터 생기는 마음과 그것과는 반대의 영의 생각(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진짜 당신의 생각⇒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싶은 생각)이 대립합니다. 크리스천은 그 때마다 영혼과 몸의 생각을 제지하고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자세



배(배꼽 밑)로부터 들을 수 있는 영의 생각에 충실히 따라 가야 합니다. 영혼과 몸=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어느 것을 따를지.....?! 라는 갈등이 시작될 때 오랫동안 들어 온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게 되는 것이 인간이지만【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그리고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사셨다.>(요한복음1:14)라고 쓰여져 있으므로 나날이 성경말씀을 말하며 육신을 제지하고 육신의 사람으로부터 영의 사람에게 체질을 바꿔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너희들은 이전의 생활에 속하는 정욕에 의해 파멸해 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 속 깊숙한 곳까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육신이 성경말씀에 의해 바뀌지 않는다면 사탄·악령에 지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과 피로 적군을 묶어 놓고 육신으로부터 추방할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받고 완전히 자신의 영혼과 몸을 예수님께 바치며 영에 충실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항상 영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 주길 바란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일상 생활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저 병사를 모집한 사령관을 기쁘게 하려 노력한다.〉

주의!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구어역 성경책(口語訳聖書)에는【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한복음7:38)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개역 성경책(新改訳聖書)에는【사람의 마음 속 깊이에서】, 공동 성경책(共同訳聖書)에는【사람 안에서】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여져 있으면 영혼과 영이 혼동되어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모르게 되어 버립니다. 영이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말씀의 차이에 따라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1장14절의 말씀은 신개역 성경책(新改訳聖書)에는【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습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같은 부분의 말씀이 구어역 성경책(口語訳聖書)에는【그리고 말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서 사셨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성경말씀이며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말도 의미합니다. 그 말들이 우리 안에 쌓여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뱉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인 말씀(예수님= 성경말씀)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성경말씀으로부터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한 예에 지나지 않지만, 크리스천이 자고 있는 동안에 성경책에까지 사탄의 책략이 들어가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口語訳聖書 구어역 성경책」(日本聖書協会 일본성경협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은 모두 하나님의 영을 받아 쓰여진 것(디모데후서3:16)이기 때문에 진짜 의미(진리)는 성령으로 채워져 성경책을 펼 때 당신의 영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올바르게 성령을, 그리고 성령의 세례의 진의를 이해하며 지금 다시 태어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본의 현황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16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지만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바

「아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직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성령은 모든 것을 터득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이다. 도대체 인간의 마음은 그 속에 있는 인간의 영 외에 누가 알고 있을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다. 그것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이다. 이 은혜(선물)에 대해 말하거니와 우리는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을 쓰며 영에 의해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성령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 받지 않는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일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 3 장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한다

『저는 제가 보는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느끼는 것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집니다.  
영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것보다 현실적인 것이라고 아십시오.  
자기 안에 있는 영에 의해 보는 것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은 당신의 머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 (1859 ~1947)

에베소서 6 장 10 절 ~18 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끝으로 전한다. 주 안에서 그 위대한 힘에 의해 강하게 되어라. 악령의 책략에 대항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기를 입어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배와 권위, 이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즈음하여 강하게 저항하고 완전히 승리해서 확실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무기를 입어라. 즉 서서 진리의 띠를 허리에 매고 정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신앙의 방패를 가져라.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은 소멸될 것이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계속 기도와 간구를 하며 어떤 때에도 성령에 의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깨어 있으며 항상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여라.〉

이 성경말씀에는 크리스천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크리스천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지령)입니다. 그 지령이란 「위대한 **"성령의 힘"**으로 강해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은 사탄의 지배하이며 사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느끼는 것을 이용해 우리 육신(감각이나 감정)에 교묘히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악령의 힘, 이 지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령』·사탄입니다.

크리스천은 『성스러운 영』 대 『악령』이라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란 우선은 「성경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몸에 익힌다는 것은 「성경말씀」이 자신의

영에 쫓겨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스러운 영』(진리)의 "힘"으로 인해 『악령』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크리스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을 성별(聖別)하고 영이 교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합니다. 그 성스러운 집회 안에서 이미 무기를 몸에 익히고 성령으로 채워져 "힘"을 얻고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올바른 영의 밥을 받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무리에 있는 양을 주님께서 써 주시는 그릇,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도록 키울 임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쁨 부음을 받아 양의 영에게 올바른 영의 밥(적절한 성경말씀, 지혜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양들은 주어진 밥을 「아멘」이라며 기뻐하며 영으로 받음으로 인해 영양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서 쫓겨 갑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이 이야기해 주는 간증에 의해서도 사탄의 책략이 폭로되고 강한 신앙을 얻으며 서로 기도하여 무기를 익힐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 대한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몸에 익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영적인 싸움을 함에 의해 처음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이 사탄의 불화살(육신에 공격해 와서 육신의 생각이 지배되게 하고 진리로부터 비껴가게 하는 공격)에 계속 위협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는 한 순간 한 순간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런 중에 언제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채워져 "힘"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졸지 말고 정신차려 영의 눈을 뜨게해서 머지않아 예수님에 의해 하나의 무리가 되어야 하는 모든 크리스천을 위해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지성으로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모르더라도 성령이 영에 의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심),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힘"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1장, 2장에서는 크리스천이 "힘"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힘"을 받는 방법(성령의 세례)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 3장에서는 "힘"을 받은 크리스천의 바람직한 자세(모습)를 전해 가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배와 권위, 이 세상의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에 대한 싸움이다.>(에베소서 6:10 ~12) 라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항상 이 세상의 신인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에 있어 크리스천은 세상의 빛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며 최대의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악령』·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영과 육신의 성별(聖別)이 확실히 행해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영과 육신(영혼·몸)의 성별》

크리스천은 영에 의해 걸어 가는 생물이며 영으로 성경말씀을 해석하고 영에 의해 선악의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영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알며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영혼·몸)이 있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사탄의 지배하에서 교육·환경 등에 의해 각자 다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어 성령을 받고 그 위에 성령의 세례(체음)를 받는다면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의 힘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생기는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성령이 주도권을 쥐어 주시기 때문에 계속 승리의 축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크리스천은 영과 육신의 성별(聖別)을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8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반대이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영과 육신의 성별(聖別)을 할 수 있고 어떤 때라도 계속적으로 24시간 항상 영의 생각으로 채워져 성령만을 따르며 어떤 일이라도 행해 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구원받기 전의 육신으로 살아 가던 때와는 180도 반대 방향을 향해 영에 의해 걷는 새로운 자기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자기는 지옥을 향해 걷고 있고 새로운 자기는 천국을 향해 걷고 있는 것입니다. "180도 반대 방향을 향해"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명한다. 성령을 따라 생활하라. 그리하면 결코 육신의 욕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육신이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신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둘이 서로 대적하고 그 결과 너희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같이 알지 않는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진 자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식이다.> (로마서 8:14)란 이렇게 영과 육신이 성별되어 새로운 자신의 성질=「**성령의 열매**」(예수님의 품성과 성질)가 열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선물**」(하나님의 힘에 의한 여러 가지 일)을 받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주의! "모든 하나님의 아이"="크리스천"이 영으로 인도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3절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이가 되고



나서도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22:14, 마태복음7:13~14, 마태복음7:21~23 ※P10~11 참조)

성령의 열매는 「사랑·희락·화평·오래 참음·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이며 성령의 선물은 「계시의 선물 (지식의 말씀·지혜의 말씀·영들을 분별하는 힘), 힘의 선물 (신앙의 선물·기적을 행하는 힘·병 고치는 은사), 영감에 의한 선물·교류의 선물 (예언하는 선물·방언의 선물·방언을 통역하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선물》		
<div> <div>사랑</div> <div>희락</div> <div>화평</div> <div>오래 참음</div> <div>자비</div> <div>양선</div> <div>충성</div> <div>온유</div> <div>절제</div> </div>	계시의 선물 (아는 힘)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힘의 선물 (행하는 힘)	신앙의 선물	기적을 행하는 힘
	영감에 의한 선물 교류의 선물 (말하는 힘)	예언하는 선물	방언의 선물
		영들을 분별하는 힘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선물	

우리 크리스천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 나날이 성장하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선물이 하나씩 하나씩 주어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목소리에만 충실히 따랐을 때 사탄과의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 계시고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며 신앙이 강하게 되고 어떤 때에도 영의 생각만 충실히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으로 채워지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살아 있는 것은 이미 내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2:20) 라는 성경말씀이 성취됩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자"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영으로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영으로 살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으로 인도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크리스천에게는 연달아 간증이 주어집니다.

크리스천이 되어 180도 바뀌어서 천국으로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구원 받기 전의 자신에게는 아무런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없었다고 인정하고 그 성질을 싫어하며 자신의 영에만 충실할 것을 결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11장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깨끗한 것이 될 것이다.>

고린도전서5장6절~7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조금의 누룩이 가루 덩어리 전체를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새로운 가루의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디모데후서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만약 사람이 저속한 것을 없애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것이다.>

육신은 구원받기 전에 얻은 자기 자신의 상식·가치관·생각 등이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영에 대해 반발해 올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 안에 있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악령(3대~4대에 걸친 피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의 악령 등 출애굽기34:7)도 공격해 옵니다. 그런 구원받기 전의 자신 안에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과 하나씩 하나씩 결별해서 깨끗하게 될 것, 사탄(악령)과 싸워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냐하면 만약 육신대로 살면 너희는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는 살 것이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온갖 환경·사람·물건·일 등을 써서 우리를 크리스천으로서 성별(聖別)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날이 훈련시켜 주십니다. 죽음(지옥)으로부터 생명(천국)으로 옮겨지기 위한 주님의 훈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11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 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 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너희는 훈련으로서 참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하고 계시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동안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훈련 하게 하지만 영혼의 아버지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모든 훈련은 당분간은 기쁜 것이라 생각할 수 없고 오히려 슬픈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단련받은 자는 평안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육신은 힘들겠지만 우리가 따르는 것은 영의 생각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육신의 마음에 충실히 따른다면 영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느끼는 것, 보는 것 등의 육신의 생각보다 성경말씀만을 사랑하고 믿으며 악령과 싸우는 훈련을 예수님 당신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11절)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별(聖別)되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별(聖別)된 크리스천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기를 몸에 익히게 해 주시는 목사님, 형제 자매, 집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힘이 있는 간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자신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크리스천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탄에게 승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힘이 있는 목사」 「힘이 있는 형제 자매」 「힘이 있는 간증」 「힘이 있는 집회」에 대해 전해 가겠습니다.

## 《목사란》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라는 크리스천의 신앙 생활 중에, 목사란 양(신도)이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의) 깨끗함, 성스러움』(주의)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양(신도)을 지키고 훈계하며 훈련시키고 키워 성별(聖別)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특별한 기름부음을 받은 그릇(인간)을 사용해서 양(신도)을 키우기 위해 무리를 만드십니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반대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육신의 마음과 싸우고 영의 마음(성령)에만 충실히 따라 자기 자신의 100%를 완전히 성령에 바치고 그리스도의 마음(아무도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무리의 양(신도)을 키웁니다.

하늘의 부르심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 특별한 기름부음이 있는 목사란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받고 영과 육신을 완전히 떼어내어 수많은 사탄의 영력과 싸워 승리를 얻은 그릇(인간),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성령의 선물이 주어져 있는 그릇(인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탁상공론을 통해서 얻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 자신을 학문으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10장17절~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칭찬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다.〉

「영」과 「영혼·몸」(육신의 생각)의 사이에 선을 그어 성별되어 있지 않다면 성령께 자기 자신을 100% 바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영혼(지성·의사·감정)과 몸(감각)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지만 사탄은 영의 부분까지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우리는 우리 영(성령)에 의해 영(하나님)의 생각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영과 육신(영혼·몸)의 성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별이 없다면 자신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사탄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사탄의 목소리를 들으며 따르고 있다면 이미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는 상태이며 언제까지나 거룩한 분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승리,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과 육신(영혼·몸)이 명확히 성별되어 100% 성령께 자신을 바친 그릇(목사)은 100% 성령으로부터의 성스러운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한 메시지와는 전혀 다르며 모두 성령의 선물에 의해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을 분별하는 힘에 의해 문제를 푸는 성령의 선물 등) 이 메시지가 영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성경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므로 완전히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50%만 성령께 자신을 바치고 남은 50%는 자신의 생각으로 메시지를 만들어서 양(신도)들에게 조언을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영과 육신은 반대,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예수님), 육신의 생각은 죽음(사탄)이라면 양(신도)들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양(신도)들은 혼란스러워 하며 신앙을 빼앗기고 영이 말라서 영양실조에 걸려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리를 거느리는 목사님에게 소중한 양(신도)들의 목숨을 맡기고 계십니다. 만약 목사님께서 성령을 충실히 따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영적인 일도 모르고, 성령의 선물도 없고, 또 사탄의 책략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보다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며 틀린 것(예수님·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양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목사님께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의 영적상태를 받는 양들도 같은 상태가 됩니다. 거기에는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은 지옥이며 천국이 아닙니다. 이처럼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하늘의 부르심과 계획을 받은 그릇(인간)이며 그 책임은 너무나 큼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서는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을까. 둘이 다 구렁이에 빠지지 않을까.〉

에스겔 34장 19절

【나의 양은 너희 밭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밭로 더럽히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나의 양은 너희가 밭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밭로 더럽힌 것을 마셔야 하는 것일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책이 모든 예언은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언은 결코 인간의 의지로 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사님께서는 우리 이익을 위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예수님의 종이 십니다. "이익"이란 구원받기 전, 진리를 따르기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나 사탄의 지배하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성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우리 위에 설 권위를 받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의 위에 설 권위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위에 설 권위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위에 설 권위란 예수님께서 본 보기를 보여 주신 것처럼 "발을 씻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10장42절~45절

【예수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다.「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방인의 지배자로 보이는 사람들은 그 백성을 다스리고 고관들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너희 중에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자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너희 중에 사람 위에 서고 싶은 자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이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이며, 또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이다.〉

요한복음13장8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다,「내 발을 절대로 씻지 말아 주세요.」예수님

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셨다,「만약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지만 목사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는 그릇(인간)이기 때문에 존경하며 반드시 따라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13장8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목사님과 양(신도)은 영대 영의 관계입니다. 위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결코 육신대 육신이라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모른다면 크리스천 생활에 대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대해서는 간음이나 지배, 심판, 분파 분열, 우상 숭배의 악령 등, 사탄이 가져 오는 여러 가지 악령이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린도후서5:16)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으므로 목사님을 육신(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과도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과 자기 자신, 일대 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사님을 신뢰하며 신앙 생활을 보내야 합니다.

로마서13장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는 네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지만 만약 네가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해야 한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며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노를 가지고 보응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에 대해 목사님께서 양(신도)에게 성령에 충실히 성경말씀과 성령의 선물 중에 있는 영을 분별하는 힘에 의해 영적인 해석과 지식·지혜의 말씀에 따라 조언을 합니다. 양(신도)은 예수님께서 주신 목사님을 따라서 신앙의 행동을 합니다. 진리를 따랐을 때, 성령이 활동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에 대해 승리할 수 있고 좋은 열매가 열려서 증언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른다.〉

요한복음 16장 13절~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올 때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다. 성령은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내 것을 받고 그것을 너희에게 알리시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6장 43절~44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나쁜 열매가 열리는 좋은 나무는 없고 또 좋은 열매가 열리는 나쁜 나무도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조언을 통해 얻은 승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 얻은 승리이므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여「내가 했다!」「내가 잘했다!」라는 거만한 태도를 취할 수 없습니다. 모두 성령에 의해 실시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합니다.

이 성령의 활동을 멈추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에 대해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마태복음 12:31~32)

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에 대해 큰 승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긴 하나님의 종·목사님께서 기름(성령) 부음을 받은 인간이며【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마라】〈이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시편 105:15)라고 성경책에 쓰여 있는 것처럼 중대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의:「깨끗함·성스러움」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이렇게 약속이 주어져 있으므로 육신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완전히 깨끗하게 되자.〉



깨끗함.....

육체(영혼·몸)가 깨끗한 것. 예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몸(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곧 불행실을 삼가고 각자 조심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하고 소중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또 이 모든 일로 형제를 짓밟거나 속이지 말아야 한다. 전에도 너희에게 엄하게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더러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거부하는 자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3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각오로 마음의 무장을 하여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의해 죄를 피한 것이다. 그것은 육체가 있는 남은 평생을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이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는 이방인의 뜻을 따라 호색, 정욕, 술취함, 연회, 폭음, 제멋대로 우상 숭배를

해 왔지만 그것으로 이제 충분할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어져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성스러움.....

영이 성스러운 것. 성령을 충실히 따르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3절~17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주어지는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고대하여라. 유순한 자식으로서 알지 못할 때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성스러운 분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성스러운 자가 되어라. 성경책에 『내가 성스러운 자이므로 너희도 성스러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왜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성스러운 것이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요한1서3장2절~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는 자신이 그를 닮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 이 소망을 가진 자는 모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 《형제 자매란》

양은 혼자서는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고 영을 맡은 목사님과 형제 자매가 없다면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장이 없습니다. 형제 자매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무리(교회)에 인도받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12장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신 것이다.〉

성경책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린도후서5:16)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 역시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관점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형제 자매도 영대 영의 관계입니다. 모두 영에 의해 알 수 있습니다. 무리에 인도받은 멤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모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정하는 깨끗함·성스러움을 양에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온갖 환경·물건·사람·일을 통해 양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을 주시는데 그 훈련의 중심 장소가 무리입니다. 무리에 속하는 양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에 있어서의 가족입니다. 모든 양이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그리스도의 몸(각자가 무리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의 손이나 발, 손가락, 귀의 역할을 하고 모두가 연동되어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12장12절~14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단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이 하나라도 지체는 많이 있고 또 몸의 모든 지체가 많이 있더라도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도 같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도 한 성령에 의해 한 몸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실제로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것으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부분이 체험한 훈련이나 영적인 싸움, 승리의 간증을 듣는 것은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혹은 미래의 영적인 싸움에 대해 필요한 것이며 자신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있어서 「이 세례는 남의 일」 「나에게는 이런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라고 단정지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모든 보는 것, 듣는 것,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34절에 쓰여 있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 **믿은 자의 무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아무도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 의 "물건"이란 (영적으로는) 양들이 체험한 훈련이나 간증입니다. 이것을 공유함에 의해 아직 자신이 체험하고 있지 않은 싸움이나 사탄의 책략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리의 양들의 영적인 성장은 아주 빠릅니다.

또한 한 사람의 양이 축복의 길인지 저주의 길인지를 선택할 때나 훈련 중에 못 일어날 때, 흔들렸을 때에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목사님이나 같은 영적 체험을 가진 그리스도의 몸(형제 자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합니다. 그렇게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서로 기도하며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의 축복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 받아 갑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되어 함께 슬퍼하며 고민하고 기쁨을 공유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을 배워 그 사랑에 의해 각 부분이 확실히 연결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16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성스럽고 사랑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몸에 익혀라. 서로 참고 만약 서로 비난할 일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주님도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여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히 매는 띠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고 한 몸이 된 것은 이를 위해서이다. 항상 감사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깃들이게 하여라. 그리고 지혜로 서로 가르쳐 훈계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

또한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에는 무리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성령의 선물이나 일이 주어집니다. 그것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해서 다른 부분이 승리를 얻었을 때,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간증이 되어 신앙도 더 강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27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나 실제 지체는 많이 있지만 몸은 하나이다. 눈은 손에게「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고 머리는 발에게「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오히려 몸 안에서 다른 부분보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 안에서 다른 부분보다 못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귀한 것을 입혀 더욱 좋게 보이게 한다.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더욱 아름답게 하지만 아름다운 부분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더 좋게 보이게 하여 몸에 조화를 주신 것이다. 그것은 몸 가운데서 분열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기뻐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앙의 일치와 그를 아는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덕의 높이까지 이르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무리를 통해 체험시켜 성경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더욱더 크리스천으로서 성장시켜 가십니다.

###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 《간증이란》

성경책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누가복음 6:44)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속해있는 무리에는, 또한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열매가 열려 있습니까? 승리의 간증이 연달아 주어지고 있습니까?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밖에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 쓰여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우선시켜서 주어진 축복? 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주어진 축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파라오의 지팡이(사탄이 위장한 빛의 천사)와 모세의 지팡이』(주의)에 비유됩니다.

파라오의 지팡이로부터 나오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온 축복?(실은 저주)이며 단발적인 것으로 가령 한가지 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 지더라도 다른 일에 대해서는 축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금전적인 면에서 잘 풀리고 있더라도 가정이나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것 등) 그리고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책략은 빛의 천사가 위장해서 축복을 얻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게 만들고 그 후 단숨에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훔치고 죽이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불안정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지 않습니다. 만약 육신의 욕구, 눈의 욕구, 가진 것에 대한 자랑,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진 채로 기도해서 얻어진 일을 간증이라 한다면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 요한 1서 2장 15절~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



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안에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가진 것에 대한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지나간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부를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얻고 싶어 기도해서 복권에 당첨 되는 것 만큼 영적으로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사람, 물건, 사회적인 지위·명예 등) 때문에 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도서5장10절~14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 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 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부를 사랑하는 자는 부를 얻더라도 만족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헛된 것이다. 즉 부는 이것을 모으는 소유자에게 폐를 끼칠 것이다. 또 그 부는 불행한 일에 의해 없어져 버릴 것이다.〉

누가복음16장13절~15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어떤 종이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가까이 하고 한쪽을 멀리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정욕이 깊은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조롱했다. 그러므로(예수님께서서는)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옳다고 하는 자들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다.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로부터 나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축복입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경제적·건강 등..... 모든 것에 대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 그 축복을 얻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간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3서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이 네가 모든 일들에 대해 은혜를 받고 건강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잠언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꺾하여 주지 아니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주님께서는 이것에 아무런 슬픔도 주지 않는다.〉

요한복음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세상의 최고의 부·축복)이란 유일한 참 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께서 보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신앙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영생을 획득하라. 너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훌륭한 증언을 한 것이다.〉

주의: 『파라오의 지팡이(사탄이 위장한 빛의 천사)와 모세의 지팡이』

파라오의 지팡이.....

파라오 밑에 있는 이집트의 마술사(사탄)의 지팡이.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파라오의 지팡이는 사탄이 위장한 빛의 천사이다.

고린도후서11장 13절~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사람을 속이는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봉사자로 위장하더라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될 것이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팡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했다. 파라오도 그것에 대항해서 지팡이를 던졌다. 그러자 파라오가 던진 지팡이도 마찬가지로 뱀으로 변했다. 하지만 모세의 지팡이가 파라오의 지팡이(뱀들)를 잡아 먹었다. (출애굽기 7장 8절~12절)

가짜는 어차피 가짜·퀄트= 죽음이며 진정한 신·진리만이 반드시 승리한다.

고린도전서15장 55절~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은 승리에 휩쓸려졌다. 죽음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가시는 어디 있느냐.〉 죽음의 가시는 죄이다. 죄의 힘은 율법이다. 하지만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 《집회란》

하나님에 의해 모여 영의 일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가족**이 교류하는 장소를 집회라고 합니다. 집회에서는 목사님으로부터 올바른 영의 밥(성경말씀·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형제 자매)가 영적인 싸움을 통해 배워 온 것이나 사탄의 책략들을(예수님 앞에서) 빛을 향해 들어내고(=간증함), 그것에 의해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고 승리를 확신하여 신앙을 강하게 해 갑니다. 성령에 의한 간증에는 형제 자매들을 해방시키고 힘을 주어 일어서게 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기 위한 강한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훈련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그 대답도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의 육신(머리)이 모르는 것을 성령만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지배하고 있는 집회에서 배운 것은 모두 우리(양)의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위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영에 의해 모이는 집회」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육신에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사탄)를 이겼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반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교류한다면 사탄이 자유롭게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교회·집회)이 이 세상과 같이 되어 버립니다. 같은 악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이는 간음의 장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34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교류는 선한 습관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의 가족**과 영으로 교류하는 「집회」에는 이렇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이것을 경시할 수 없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집회를 그만두지 말고〉(히브리서 10:25) 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교류는 양의 성장을 위해 불가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무리가 없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서 안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영을 가지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전해 주는 형제 자매, 함께 기뻐해주는 형제 자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그때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메시지나 무기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의 책략에 걸려 있기 때문에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많이 맞게 되고 어느새 무엇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며 무엇이 사탄이 준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 버립니다. 가령 성경 책을 읽고 말씀을 받고 있더라도 영으로 받은 말씀인지 아니면 육신에 대해 기분 좋은 것을 스스로 선택해 온 것인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의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영의 생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어 그 결과 독선적인 종교가 되어 버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라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7절~21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그러므로 나는 주 안에서 엄숙히 권고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허망한 마음으로 걷고 있는 것처럼 걷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스스로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그같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확실히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예수에 관한 진리를 그대로 배웠을 터이다.〉

영의 교류가 없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육신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이 육신의 지식으로서 쌓이는 것입니다. 독선적인 종교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고 성경말씀 = 예수님을 따를지 아닐지 마지막 판단·결정은 자신이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 없고 (딱 쥐고 있음), 육신을 제지해서 성별(聖別)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만 구하는 「자기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냥 자기만족의 「이익을 얻기 위한 종교」일 뿐입니다.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고 스스로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그 끝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도 있다.〉

마가복음 7장 6절~7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인간의 계명을 가르침으로서 가르쳐 무의미하게 나를 경배하고 있다.〉

빌립보서3장18절~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대하고 있는자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그들의 일을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 그들은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땅의 일이다.〉

하지만 진리를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기」이며 모든 성경말씀을 기뻐하며 아멘이라고 받고 성경말씀 안에 자신을 찾아내어 성경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릇으로서 쓰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에 충실하게 되어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것, 그리하면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룰입니다. 안식일을 성별(聖別) 하고 집회에서 **하나님의 가족**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 마지막으로

로마서12장1절~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스러운 산 제물로서 바쳐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이 하나님의 지시인지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해 온 것, 목사·형제 자매의 바람직한 자세, 간증에 대해, 그리고 성스러운 집회의 바람직한 자세가 하나님의 교회(크리스천)에 있어서의 진리입니다. 진리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제 어떤 때에도 바뀌지 않는 옳은 일의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진리를 성경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천이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일치, 예수님= 성경말씀을 아는 지식의 일치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호세아4:6)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의 크리스천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영에 의해 반드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단·교파로 나뉘어서 각자 자기 종교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분열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같은 예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각(지식)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하나님의 가족이 됩시다. 그리고 일치단결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이끌어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시다.

고린도후서13장8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따르면 힘을 가질 수 있다.〉

디모데전서2장4절~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것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다.〉

「포도나무」발행  
2013.7.7

## 〈실록〉

○씨는 23년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채로 성령의 세례에 의한 "힘"을 받지 않은 크리스천(자칭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만을 의지한 "힘"이 없는 나날을 보내 온 ○씨는 성령의 힘을 구해 우리 포도나무로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진리를 알게되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편지는 ○씨가 청년 K씨(한국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K씨는 한국에서 4대에 걸쳐 대대로 크리스천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씨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종교)를 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K씨는 우리 포도나무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힘"을 얻었지만 조금 지나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의 갈등이 생겨 목사님이나 성경말씀에 반역하고 최종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에 지게되어 무리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런 K씨에게 ○씨는 자신이 체험해 온 간증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꼭 한번 읽어 주십시오.

K씨!

저는 23년간 기성 교회(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제 자식 세 명(27살, 24살, 18살)도 마찬가지로 지었습니다. 거기에서 배운 가르침과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육신), 또한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등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2009년

1월에 예수님이신 이 포도나무에 왔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렸습니다.

저는 포도나무에 오게된 그날부터 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드러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이란 제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해롭고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의 육신(지성·의사·감정)을 포도나무의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내던졌습니다. 제 언동은 막말을 비롯해 반항, 반발, 저항, 반역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는 것이다.〉(누가복음6:45)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삶과 죽음은 혀에 지배된다.〉(잠언18:21)

그런 저를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들은 성경말씀을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축복한다」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포도나무의 형제 자매들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훈계를 솔직하게 인정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순수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고 충실하게」입니다. 저는 어떤 태도였을까요..... 형제 자매들과 달랐습니다. 태도는 바뀌지 않았고 목사님이나 형제 자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으며 피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집회에서 폭언을 내뱉고 모두를 혼란시켰습니다. 성스러운

집회에서 그런 일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결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 교회라면 바로 쫓겨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달랐습니다. 저를 내쫓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사탄을 내쫓고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배와 권위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에베소서6:12)

포도나무의 목사님, 형제 자매는 항상 이 말씀을 토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말씀에 충실했습니다.

기성 교회에 있었을 때는 특별한 트러블 없이 교회 생활을 보내 왔었지만 포도나무에 오고나서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영(성경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육신(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대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왜냐하면 육신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신의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이다.〉(갈라디아서5:17)

보통 사회나 기성 교회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거나 뭔가 트러블이 있더라도 육신(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나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의리나 인정의 악령이나 간음의 악령이 원인입니다. 인간적인 상식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 조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예수님 당신이 계시는 곳, 빛 그 자체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1:10)

그러므로 육신(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보내 온 저에게는 『.....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은 서로 반대 되는 것이므로 그 결과 너희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갈라디아서5:17) 라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갈등의 나날이었습니다.

K씨! 포도나무에 와서 목사님= 예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때는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인간이며 예수님이 아니다! 교주 같다!— 하지만 목사님을 보고 있으니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든지 묻고 그 묻은 것을 우리 양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컨대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때로는 엄하게) 우리 양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므로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올 때에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16:13)

이 성경말씀대로 목사님께서는 성령께 당신을 바치며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에 대해서도 성령의 선물【지혜의 말씀】에 의해 가르쳐 주십니다.

K씨!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어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에서 보내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시기관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당신은 모른다. 이 사람의 아버지는 목수다」라며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K씨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예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 양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로마서13장4절부터 반드시 읽어 주십시오.

K씨가 목사님에 대해 불신감을 품고 거부하고 있다면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신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너희 말을 듣고 따르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며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저버리는 것이다.〉 (누가복음10:16)

K씨가 목사님을 마음(육신)으로 판단하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목사님을

만나더라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할 것입니다. 성경책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있었다하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린도후서5:16) 입니다!

K씨! 우리 크리스천은 빛이신 예수님= 목사님 밑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볼 수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마태복음13:14)

저는 이 말씀대로의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로, 마음으로 듣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몰랐습니다. 목사님으로부터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해 왔습니다. 저는 모른다, 이해 못한다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하지만 제 영은 진리를 구하고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나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에게 말한다」입니다. 제 영이 나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K씨의 영도 그렇지 않습니까? K 씨가 거부하는 것은 K 씨의 마음(육신)입니다. 진짜 K 씨는 영입니다. K 씨와 저는 꼭 기성 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것이 들어 있지요? 저는 그 배운 것을 가진 채로 새로운 가르침을 들었기에 들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 포도주를 낚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마태복음 9:17)

배워 온 것을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은 넣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상식, 지혜, 지식이 들어 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옛날에 배운 틀린 가르침을 가진 채로 새로운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정말로 힘듭니다.

K씨!저는 예수님= 포도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렸다.〉(요한계시록19:13)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성경말씀= 포도나무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요한복음14:6)

이것이 제 처음의 사랑(하나님께서서는 사랑)이라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성령께 재촉

받아 K씨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동안, 저는 더욱더 예수님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3년전이 아닙니다! 그 때는 만나고 있지 않았습다. 지금 명확히 압니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이지요! 예수님이 길이지요! 예수님이 진리이지요! 예수님이 생명이지요! 성경말씀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포도나무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을. 여기에, 포도나무에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자식 세 명도 포도나무에 와서 종교로부터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독교를 비판해 온 남편도 ○○목사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되어 구원받았습니다.

K씨도 처음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K씨도 포도나무에서 저와 같은 예수님을 만났지요! 성령이 명확히 가르치고 있을 것입니다.

K씨의 영이 K씨에게 말하고 있지요?!

K씨!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포도나무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형제 자매들을 만난 것, 포도나무에 인도받은 것, 모두 성령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육체로 마치겠습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는 그렇게 아둔하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갈라디아서3:3)

마지막으로 예수님으로부터 K 씨에 대한 성경말씀을 받았습니다.  
K씨의 영으로 받아 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있거라.〉(요한복음15:9)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예수님= 성경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오늘 그의 음성(예수님=성경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히브리서4:7)

아멘.

예수님 당신이신 "포도나무"로 돌아와 주세요!!

K씨가 돌아올 날을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포도나무」란 성경책 요한복음15장에서 따 왔습니다.

『나(예수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하나님)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크리스천)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중략).....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중략).....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이 말씀대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 에스겔 제34장의 예언에 따라 모여서 성서 전부의 말씀을 사랑하며 믿고 실천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성경말씀은 「한일대조성경」(대한성서교회)와 「口語訳聖書 구어역 성경책」(日本聖書協會 일본성경협회)에서 인용했습니다.

이 책은 당시 포도나무 부목사로 임명된 20대의 여성과 3년 전에 구원받아 가르침을 배워 온 30대의 주부가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으로 채워지면서 작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 특별히 해설서 등으로 성경책의 내용을 공부한 적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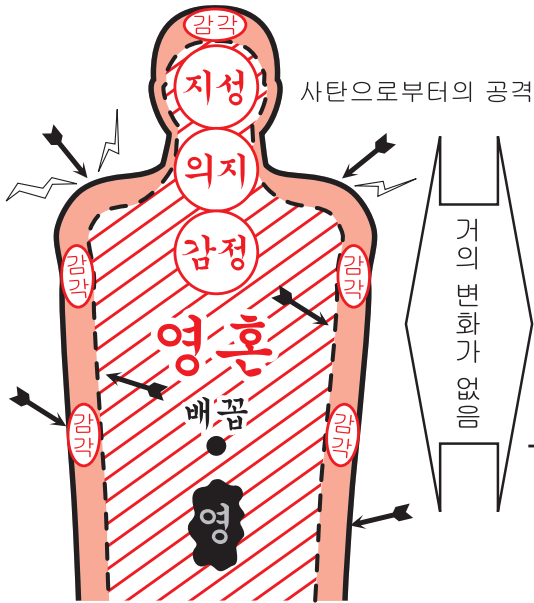
단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성경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아멘」이라고 하며 받아들여 온 것뿐입니다. 이해력은 예수님 당신이 직접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지식이 없던 사람을 택해 성경책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바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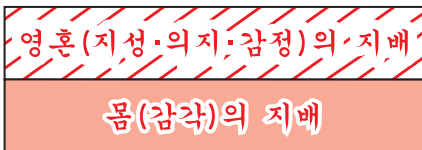
영 · 영혼 · 몸  
 《 당신의 본질 》 (지성·의지·감정) (감각)  
 진짜 당신  
육체 《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입은 가죽옷 》  
 사탄의 지배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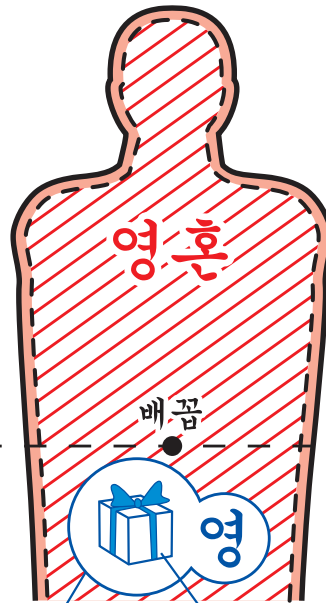
(영과 영혼을 덮고 있는 육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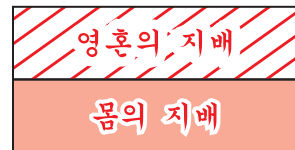
(1) 보통의 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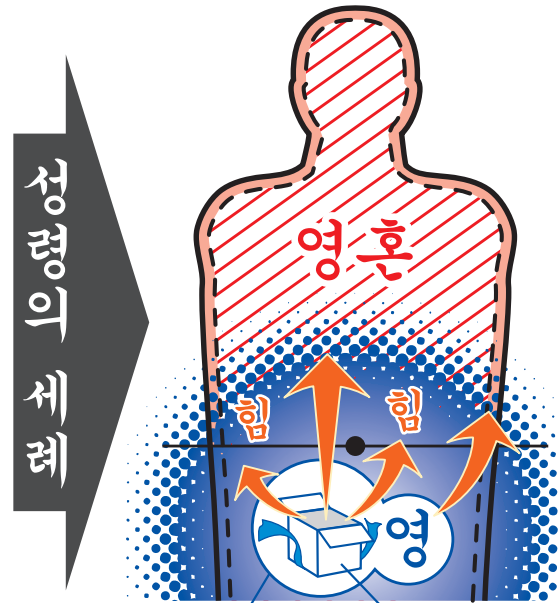
내 안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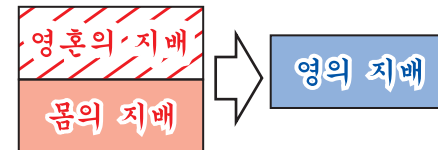
(2) “예수님께 고백의 기도”  
만 한 크리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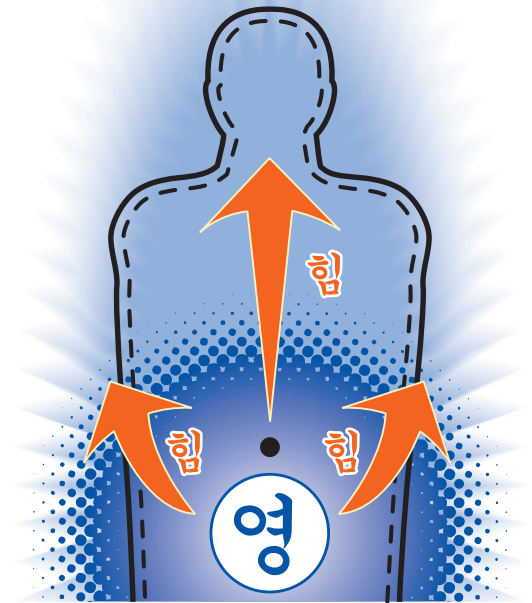
예수님에 의해 내 안의 영이 하나님과의 교류를 회복함. 그리고 보혜사(保惠師)=성령(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을 받고 있는 상태. 그렇지만 선물의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여전히 힘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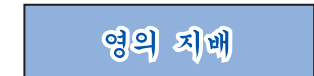
(3) “성령의 세례”를  
받은 크리스천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의 뚜껑이 열려서 성령의 힘이 뿜어나와 몸 구석구석까지 넘쳐흐름. 사탄으로부터 받은 욕망과 감정을 스스로 내쫓을 수 있는 힘이 부여됨.



(4) 성령으로 가득차 있는  
크리스천



예수님·성령·내 안의 영이 하나가 되어 그 힘이 몸 전체에서 넘쳐남.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됨.